



▷대한 불교신문사에서 1995년 개최된 '국제선불교학회의'를 마치고 세계 각국의 이름난 불교지도자·학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성운스님(맨 앞줄 정중상).

던 석가모니가 진정한 부처님으로 거듭 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언어 습관에서 비롯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좋은 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간에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법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쯤에 다니고 염주를 걸고 법문을 받았다고 해서 '불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실한 불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꼭 실천으로 옮겨야 할 도리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불교학자들은 불교를 연구하고 이론화시키는 데 열중하고 있을 뿐 실제적인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학자가 아니라도, 불자라는 사람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재식을 하고 소원을 비는 것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신의 인격과 도덕을 높이는 데는 소홀히 하고 우리의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고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자신의 수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산 속에 살거나 혹은 개인의 수행처에 머물면서 세상의 일은 '나 물리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같은 모습은, 요즘 유행하는 '나만 좋다' 하는 말에서 보듯, 사회 혼란은 바로 이 짧은 한 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2500여 년 전에 우주의 상호 의존의 연가법을 찾으신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편입편만을 추구하지 말고 중생의 아픔을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만을 위한 뿐이지 자기의 안락만을 추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기는 하지만, 만약 불타는 집과도 같은 고택의 바다 속에 우리 자신이 빠져 헤매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어찌 안락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까?

좋아한다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며, 싫다 해서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닌

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란 복잡하고 현란한 교리보다는 현재의 생활을 중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남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자리아타(自利利他)하는 생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청정하게 정화되어 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평소 생활하는 데 있어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불보살들의 가르침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어찌 힘든 것을 마다하고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삼보에 봉사하는 것 외에도 불보살들의 지칠 줄 모르는 중생제도의 정신을 본받아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

-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

"여러사람의 이익 먼저 생각" "너도나도 불국토 자원봉사자"

법인 육바라밀 중 으뜸이 '보시'입니다. 스님께서는 불자들에게 자원봉사를 많이 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원봉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보시행이 되었지요.

▷자원봉사의 즐거움은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또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크게 깨달은 대덕들은 한결같이 "불가의 기능이 되려면 먼저 중생의 소와 말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삶에서 유용한 지식과 총명함보다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수많은 경전을 읽어보더라도, 신대의 스님들은 모두 이 같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설총 선생은 동산 스님 아래서 공양주를 지냈고, 경계 스님은 위산 스님 아래서 쌀을 관리하는 소임을 맡았습니다. 임제 스님은 소나무를 키웠고, 양산 스님은 소를 길렀습니다. 동산 스님은 차를 심었고, 운문 스님은 쌀을 이고 낫았습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이라는 열불소리를 쫓아가 고난으로부터 중생을 구해 주시는 자원봉사자이시며, 지옥을 찾는 중생이 없을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말한 지장보살은 지옥에서의 자원봉사자입니다. 또 아미타부처님은 극락정토에 온갖 칠보의 나무를 키우는 자원봉사자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불보살들의 가르침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어찌 힘든 것을 마다하고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삼보에 봉사하는 것 외에도 불보살들의 지칠 줄 모르는 중생제도의 정신을 본받아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

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이슬은 쉽게 자취를 감추지만 대지를 온유하게 하고, 겨울 햇살은 짙지만 얼음과 서리를 녹여 내리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직 살아 있는 때를 활용해서 노력하고 생명의 불꽃을 태워서 찬란한 빛으로 후세 사람들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옛 선사들은 입멸하는 순간까지 커다란 원력으로 정진하였으며, 최후의 한 순간까지도 헛되지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안 스님은 열불소리 속에서 극락왕생하셨고, 현창 스님은 붓을 들고 경전을 번역하시다가 입적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목숨을 다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기에 인생의 마지막 같지만 실은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삶을 마감할 때, 우리들의 의식과 몸은 비록 썩어서 흐트러지지만 심식(心識)은 업력을 따라서 들고 옵니다. 우리들 범부들은 시작을 알 수 없는 겁(劫)을 거쳐서 수없이 죽고 태어나면서 혹은 잠시나마 소로 혹은 아귀를 거치면서 잠시라도 쉬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지함으로 인해 죽고 흥치고, 사름과 거짓 등 온갖 죄업을 저지르니 현재의 생(生)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늘 길 없고 다음 생에서도 물론 괴로운 업보를 받아야 합니다.

불성은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밖에서 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생의 안락과 복덕을 멀리서 구할 필요도 없고, 불보살님이 나타나서 구해주기를 바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깨닫는 노력을 해야 하며, 삼세(三世) 부처님의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리는 마라톤 주자의 정신을 배워서 금생(今生, 지금의 삶)이라는 끊임없는 길을 달려서 나와 남을 제도할 수 있는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영원히 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째서 지금 정진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리=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허주스님의 스님이야기

법현 스님

요즘같이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시대에 살면 절절도 시류와 무관할 수는 없는 법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수행자의 모습 아닐까.

중생은 욕망으로 살고 보살은 원력으로 사는 것이라는 오욕락(五欲樂)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네 인생은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다. 하늘 한 번 제대로 쳐다 볼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은 늘 피곤하고 고단하다. 그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 추구하는 것이 돈 쓰고 돈 버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니 말이다. 그것이 세상사 이치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도상에 사는 나 자신도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녁이면 괜히 허탈한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다. 그래도 산에 있을 때는 하루 세계 발만 축내는 발발레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루하루가 넉넉한 느낌이었는 데...

수행자의 삶은 원력의 삶이다. 원력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거창한 구호도 아니고, 이타적인 표어도 아니다. 그저 묵묵히 깊은 강줄기와 같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흐름을 유지하는 것. 그 어떤 상황

초발심 그대로의 모습 아픈 무릎 좋아졌는지

에서도 변하지 않고 도도한 흐름을 깨지 않는 그것이 원력이 아닐까.

수행이란 글자 그대로 행실을 바로 닦는 것인데, 외침과 구호는 많은데 보여지는 행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법현스님에게선 구도자의 날카로운 예지는 보이지 않으나 마음이 폭 쉬어서 산골 중 법새가 쭉쭉 난다. 그저 절에서 되면 거기에 들어가 정진하고 해제가 되면 재방 기도처를 찾는다. 추운 겨울이면 요즘 같은 짙은 더위엔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와 정진을 쉬지 않는다. 그렇다고 어디 주지 소임을 살았다던가 암자 원주자리 한 번 살아 본 적이 없다. 꼭 이타적인 회향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부끄러움이다. 그 부끄러움은 열심인 사람을 소승이라, 이기적이라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난해 늦게 발심을 해서 하안거에 들어갔다. 뒷날 가까운 사형에게 들으니 법현 스님이 나를 많이 찾았다고 한다. 집 나간 탕이가 돌아왔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사(事)로 끝난 것 같던 봄이 그래도 여간(餘韻)이 있어서 신랑 문고리라도 잡은 것이 안심이 되어서 그런지 25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었는데 몇 번이나 통화를 시도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이도 부끄러웠다. 그의 얼굴을 보면 바위라도 깨고 그 속에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

누군가 말했다. 중은 좌복 위에 앉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사관은 중으로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저 먹물 옷의 무게를 견뎌내며 오매불망 참구(參究)에만 힘쓸 때 그 참구인의 참모습이라고. 그 참모습이 독각(獨覺)이

라 매도되더라도 좌복 위에서 일생을 회향할 수 있다면 중노릇 잘하고 간 거라고...

또 누군가 말했다. 곧게 뻗은 나무는 쓸만한 목재로 잘려나가고 산을 지키는 것은 온통 잡목뿐이듯이, 중노릇 좀 할 만하다 생각되는 이들은 죄다 기어나간다고. 비약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얼골 반반하고 영리하게 생긴 외모로는 한 생각 잡고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라.

헌데 법현스님은 초발심 그대로의 모습이다. 적어도 먼발치서 바라보는 내에게는 그렇다. '벼룩 세 마릿은 물고 갈 수 있어도 혈연 끊고 입산한 중 하나는 못 물고 간다'는 어느 노스님의 말씀처럼 법현스님은 그 야말로 중고집으로 는 자기검열에 시달리면서 행자(行脚)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법현스님이 작년 산행을 하다 무릎 연골을 다쳐 심한 고통을 하였는데



그림·문병성

그나마 정진하던 선원에서 퇴방 조치를 당했다. 그는 돈이 없다. 어디 소임 한 번 살아본 적이 없기에 소액의 돈도 없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모양이다. 반평생 넘게 면벽으로 일관했던 이가 돈의 기능을 인정할 것이다. 급한 치료 때문이었지만 세속의 인간관계에서만 돈이 위력적인 게 아니라 부끄러움도 예외가 아닌 상황을 그가 늦게서야 깨닫기 시작했다. 스님에게서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작은 토크리라고 있었으면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 아팠다.

손바닥에 툄 모래알 같이 그의 가슴속에서 무엇이 빠져나갔는지는 몰라도 그 뜻밖한 허리와 나이에 걸맞지 않은 해맑은 얼굴이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다.

엊그제 전화가 왔다.

"한 철만 살고 말 거야? 기왕에 발을 디뎠으면 계속해서 밟는 거 더 견디세요."

나에 대한 실망을 이렇게 표현한 전화 음성엔 불행할 같은 따스함이 전해진다.

법한 30년 세속 나이 50이 되어서 평생 면벽만 했던 과보로 건강이 안좋은 모양이다. 처자도 많이 상했다고 한다.

암자 살림하는 사제 스님에게 상한 이빨을 보여주며 어렵게 치료비를 부탁하는 그의 모습을 떠올리니 작금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끝>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현대불교신문사
지사 · 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 634-5114
광주지사	062) 375-9986
대구지사	053) 983-9222
충청지사	042) 527-0559
울산지사	051) 752-0851
강릉지사	033) 643-5599
제주지사	016) 695-6885
진주지사	016) 585-2120
안산지국	031) 494-8859
영주지국	054) 674-1199
목포지국	061) 279-3788
밀양지국	055) 353-1196
고성지국	055) 672-0078
일본지사	031) 713-5111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 (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 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 단백질과 마그네슘, 셀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인공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는 담이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통풍성 관절염)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제'는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회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

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보다는 꾸준히 복용을 하는 것이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신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에게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연화거지천 (蓮花巨知布)

우리곁에 다년간 부처님 성철대선사께서 일생동안 입고 계셨던 누더기 두루마기를 응용하여 거지천으로 했습니다. 거지천이란? 물(巨), 알지(知), 배편(布)으로 크게 아신분이 즐겨 입었던 베타이란 뜻입니다. 그 천 중간중간에 연꽃무늬(히란야: 맑은 기가 나오는 문양: 이세석님 투허품)를 넣어 우리도 누더기 옷을 입고 열심히 수행하여 연꽃을 크게 피우자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거지천은 지리산 정학동 주변 대나무로 솜을 만들어 염색을 하였습니다.

대나무솜 염색천이란?

- ① 환원 보조작용: 식품이나 인체세포의 산화와 노화를 방지하고 재활성화 한다.
- ② 정화·여과작용: 물과 흙, 생활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 ③ 에너지 상승 작용: 자장이나 전류, 기, 에너지를 높이고 비정상 상태를 고친다.
- ④ 해독 탈취작용: 인체에 해로운 독이나 냄새를 제거해 준다.
- ⑤ 흡수, 흡착, 방출작용: 바퀴벌레, 흰개미 등 벌레가 없게 한다.
- ⑥ 가상 에너지를 확실하게 개선하는 작용
- ⑦ 원적외선 방사율 90%, 항균성 89.9%

이 솜을 원단에 직접 입혀서 만든 염색천이므로 항상 몸에 착용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 법복 1벌: 200,000원, 조끼: 60,000원
원단 1EA (4.8inch X 3.5YD): 70,000원

◆취급점 및 취급인 모집◆

자연염색연구원

경남 하동군 청암면 중리 1308-2(구 심곡본교)
전화: 055)884-5840, 5944 후대폰: 011)569-5844

바로보인 환단고기 1

대원 문제현 역자

시공이 나뉘기 이전인 태초의 모습과 우주 탄생의 비밀을 최초로 밝히다!

『환단고기』는 세계를 다스린 웅장한 고대사의 주인이었던 우리의 고대 역사를 담겨있는 역사책이다 또한 역사책이라고는 하나 태초로부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책이다. 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광활한 민족사를 찾고 황폐해진 인류 정신을 다시 꽃피우고자 하는 것이 『환단고기』를 오늘에 맞게 되살려 '바로보인 환단고기'로 펴내는 뜻이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4권 중 '권은 민족정신의 정수이자 우주의 영원한 역사인 『환단고기』의 삼일양행상을 총정리하여 출간하였다. 이어서 2·3권에 환국에서 단군조선에 이르는 고대 역사와 북부 야고구라 발해 고려의 역사를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출간할 예정이다. 『권에서는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글을 실어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2·3권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여러 역사 문헌을 근거하여 『환단고기』의 기록을 부인할 수 없게끔 최선을 다하였다.

『환단고기』가 전하는 선조의 지혜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라 정신과 몸이 나뉘기 전 우주의 모습과 인류 정신의 시조였던 조상의 진면목에서 태초로부터 고대가 오늘에 살아 숨쉬는 당신의 실존을 확인할 것이다.

바로보인의 책들
바로보인 전5권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무운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법암경 영원한 현실
바로보인 천부경 세월을 북쳐 세상을 복심사

http://www.zenparadise.com 597-2460